

# 택리지의 현대지형학적 해석과 실용화 방안\*

전 영 권\*\*

## A Modern Geomorphological Explanation and Practical Use of TAENGNIGI\*

Young-Gweon Jeon\*\*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지리서로 널리 알려진 택리지를 지형학 측면에서 접근한 첫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우선 택리지에서 나타나는 지형 관련 내용을 현대 지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식 지형 용어 정립을 시도해 보며, 아울러 택리지에 나타난 청담 이중환의 지형관을 파악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문헌연구에서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리지는 인문지리는 물론 자연지리 내용에 있어서도 훌륭한 지리서로 평가된다. 따라서 택리지는 특정 분야의 지리서가 아닌 일반 지리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택리지에 나타난 지형 관련 내용에서 판단해 볼 때, 청담의 지형적 안목은 매우 탁월하다. 셋째, 택리지에서 언급된 지형 용어는 현재 우리나라 지형학계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지형 용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며, 향후 우리 식 지형 용어 정립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가거지 선정 요소로서 청담은 지리·생리·인심·산수를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도 지형·지질·기후 등 자연지리적 현상을 주로 설명한 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청담은 좋은 산수는 인간의 성정을 도야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형경관에 관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주요어** : 이중환, 택리지, 고지리서, 우리 식 지형 용어, 가거지, 지리.

**Abstract** : This paper is the first geomorphological research on TAENGNIGI which is famous for old geography book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AENGNIGI in modern geomorphological viewpoint and then, lay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Korean style geomorphological terms. It also analyzes TAENGNIGI from Lee, Jung-Hwan(the authority of TAENGNIGI)'s geomorphological viewpoint.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AENGNIGI is a geography book including human and physical geography.

Secondly, in spite of Lee, Jung-Hwan's some metaphysical explanation of feng-shui in TAENGNIGI, his geomorphological appreciative eye is excellent.

Thirdly, it is possible that a Korean style geomorphological term will be established based upon the result of this paper on TAENGNIGI.

Fourthly, Lee, Jung-Hwan indicted geography(地理), profit(生利), human nature(人心), landscape(山水) as factors in selecting of people's dwelling place(可居地) and he described that geography(mainly physical geography) was mostly important among the four factors mentioned in selecting of people's dwelling place. Especially he also mentioned that good landscapes have a favorable influence upon the forming of people's character.

**Key words** : Lee, Jung-Hwan, TAENGNIGI, old geography book, Korean style geomorphological terms, people's dwelling place(可居地), geography(mainly physical geography).

### I. 연구목적 및 방법

조선 후기인 1751년(영조 27년) 청담 이중환에 의해 쓰여진 택리지는 종래의 군·현별 백과사전식 기술방법에서 탈피하는 대신 조선 팔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리, 문화, 교통, 군사, 환경,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대부가 살기에 적당

한 땅, 이른바 사대부의 가거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택리지는 이중환 사후 1753년 정언유가 쓴 서문 외에 사민총론, 팔도총론, 북거총론, 총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리지의 각 주제별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중환은 가거지 선정 요소 중에서도 지리(地理)를 가장 중시함은 물론, 지리를 구성하는 세부요소인 수구(水口), 야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search grants in 2000)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jeonyg@cuth.cataegu.ac.kr)

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 조산(朝山)·조수(朝水) 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처럼 청담이 가져지 요소로서 중시한 지형·지질·기후 등 자연지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는 가져지와 관련하여 약간 언급한 최희만의 연구(2000)외에는 택리지에 발간된 이후 약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택리지에 관한 연구로서 인문지리학적, 지역학적, 조경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풍수적,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더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택리지에 통상 인문지리서로만 인식되어온 편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형학계에서 사용되는 지형 용어는 원래 유럽이나 북미에서 제정된 것을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식 용어로 다시 고쳐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택리지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곳곳에 대한 지형 특성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형은 성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지형 용어는 우리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학문적 독립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어려운 지형 용어를 쉬운 우리 식 용어로 바꿔줌으로써 지형 용어 사용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전반부에서는 택리지에서 언급된 지형 관련 내용을 현대 지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식 지형용어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택리지에 나타난 청담의 지형관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택리지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지질·지형·지명 등에 대한 내용은 지질도, 지형도, 항공사진, 고지도 등을 이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상기의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얻어진 분석결과가 미흡하거나 모호한 경우,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 II. 지형 분류와 해설

본 연구에서는 지형의 대분류로 하천 관련 지형, 산지 관련 지형, 해안 관련 지형, 화산 관련 지형, 석회암 관련 지형 등의 대지형으로 구분하고 택리

지에서 언급된 각각의 미지형들을 대지형별로 적용하여 특성과 성인을 분석하였다. 기술 방법은 택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형 용어를 현재 지형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형 용어 중에서 택하여 택리지의 지형 관련 해당 문장 서두에 제시해 두었다. 다음으로 택리지에서 나타난 지형 관련 문장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택리지에서 표현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자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아서 체계화 시켰다.

### 1. 하천 관련 지형

1) 하중도(有碧只島在河中 : 벽지도는 하천 가운데에 있다. 水中威化島 : 강물 한가운데 위화도가 있다.) → 하중도의 개략적인 설명이 두 곳의 사례 지역에서 나타난다.

2) 하천 본류와 지류(江出於白頭西南 行三百里至寧遠郡 大而爲江 至江東縣 與陽德 孟山之水合至浮碧樓前 爲大洞江 : 강은 백두산 서남쪽으로 부터 발원하여 300리를 가다가 영원군에 이르러서는 더욱 커져 강이 되고, 강동현에 이르러 양덕·맹산의 물을 합류하여, 부벽루 앞에 와서 대동강이 된다.) → 하계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천의 발원지와 본류·지류 그리고 합류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여울(江既淺駛 : 강물이 얇고 빠르다. 水淺多灘 : 물이 얇고 여울이 많다.) → 여울의 발생과 지형적인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4) 하천의 범람, 인공제방의 기능과 배후지의 토지이용(每水潦漲溢 三江合爲一入海 : 매번 물이 불어 넘치면 세 강이 하나로 합쳐져 바다로 흘러간다. 江東西岸 皆狹水築長堤 內皆水田 杭稻 一望無際 如中國之蘇·湖矣 : 하천의 동안과 서안은 모두 좁은 유로를 보이며, 그 곳을 따라서 긴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 안쪽은 모두 논이다. 워낙 넓어서 마치 중국의 소주나 호주 지방 같다. 재령평야) → 하천의 범람과 제방의 기능 그리고 배후습지에서의 토지이용 등이 모식적으로 잘 나타난다.

5) 폭포(而溪澗亦泓深漚濘 下爲大瀑 卽朴淵也 : 계곡물 역시 넓고 깊게 구비치면서 정체하고, 아래에서는 큰 폭포를 이루었는데, 소위 박연폭포이다.) → 폭포의 사실적인 표현이다.

6) 습지와 감조하천(漢陽則西南七里許 有龍山湖 漢江本派 舊從南岸下過 而一波逗入北岸下 爲十里長湖 西阻鹽倉沙岸 水不滲泄 蓮生其中 高麗時 每御駕至 留連賞蓮 至本朝定鼎 鹽倉沙岸 忽爲潮水衝擊破壞 潮水直達龍山 八道漕運 悉泊龍山矣 : 한양의 서남쪽 7리 정도에 용산호가 있는데, 옛날에 한강 본류 중 하나는 남쪽 언덕 아래로 흘러가고 또 다른 본류는 북쪽 언덕 아래로 들어와서 십리에 달하는 긴 호수를 만들었다. 서쪽을 염창 모래언덕이 막아서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서 그 곳에 연이 서식하게 되었다. 고려 때 임금의 행차가 이곳에 이를 때면 으레 머무르면서 연을 감상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갑작스러운 조수 유입으로 인하여 염창 모래언덕이 무너졌다. 따라서 조수가 용산까지 들어오게 되어 팔도의 조운들도 용산에 정박하게 되었다.) → 습지 형성을 보여주며, 또한 감조하천의 특성을 가졌던 한강이 서해에서 발생한 강력한 해일이나 태풍으로 인하여 만조 때의 조수가 급격히 밀려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7) 하천(한강) 발원지(江陵西 爲大關嶺 嶺北爲五臺 宇簡之水 於是乎出 寔爲漢江之源 : 강릉 서쪽이 대관령이고, 대관령 북쪽은 오대산인데, 우통의 물이 여기서 흘러나와 한강수의 발원이 된다.) →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8) 하천침식(穿山而出 : 산을 뚫고 흘러나옴) → 하식작용을 개괄적으로 표현.

9) 하구(水口, 감해의 칠성포가 경상도의 水口에 위치. 江海相和處 :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 수구는 하구의 뜻도 있지만 유로의 의미도 있다.

10) 천정천(地低而水高 歲患漂圮 : 지대는 낮으나 하상이 높아서 수해 염려로 매년 걱정한다.) → 강바닥이 주위의 지면보다 높아서 범람으로 인한 수해 염려를 보여준다.

11) 공격사면의 하식에(壁, 石山臨江陡起 : 돌산이 강에 임하여 절벽이 되었다. 而臨江巖壁奇秀 景致絕勝 : 강가의 바위절벽의 풍경이 매우 좋다. 沿溪石壁 : 시냇가의 바위절벽. 下有石壁 而東南山峽之水 大而爲溪 旋繞於石壁下 : 아래쪽에는 바위절벽이 있고, 동남쪽의 좁은 계곡 물이 모여서 큰 시내를 이루어 바위절벽 아래를 돌아 흘러간다.) → 하식에에 대한 일반적인 풍광을 표현하고 있다.

12) 하상퇴적(宇今 三百餘年 漢水漸淺 漢江以上

潮水不至 鹽倉沙岸 歲漸泥生 將有關塞之形 此不可知也 : 지금까지 삼백여 년 동안 한강 수심이 점점 알아져 왔으며, 한강 위쪽으로는 조수가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염창 모래언덕에는 해마다 진흙이 퇴적되어 장래에는 막힐 것 같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 상류 삼림 남벌로 인한 토양유실이 한강 바닥을 매워서 수심이 알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소와 폭포(從正陽寺北入 爲萬瀑洞 有九潭之勝 : 정양사 북쪽을 따라 들어가면 만폭동이 있고, 이 곳에는 아홉 개의 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치 또한 좋다. 榆岫東北 九龍洞大瀑 自高峯飛下 穴而爲大石臼者 九層 : 유점 동북쪽에는 구룡동폭포가 있는데, 높은 봉우리로부터 날아서 아래로 떨어져 커다란 절구 모양의 구멍을 9층이나 만들었다. 龍湫=龍沼) → 소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폭포 아래에 형성되는 폭포의 성인과 형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14) 감입곡류천과 암석하상(俗離山下 皆石作洞府 紆回深遠 有八曲九遙之名 : 속리산 아래는 모든 계곡이 돌로 이루어져 있고, 깊고 멀리 굽이쳐서 팔곡구요라는 이름을 가진다. 山枝回複 洞府重疊 如城郭之狀 : 산과 계곡이 여러 겹으로 굽이치고 겹쳐져 마치 성곽 모양을 보인다. 俗離九遙八曲之水 : 속리산 계곡물은 8번에 걸쳐서 곡류하며 흐른다.) → 감입곡류천의 형태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15) 하식을 받은 기반암 형상에 따른 유수의 특성 : 폭포·급류·여울·못·곡류천·포트홀·폭호·하식동(瓶川南爲道藏山 亦俗離一支來會 與青華偈側相對 而兩山之間 龍湫以上 通稱龍游洞 洞中平地皆盤石 大川自西之北 闊展平鋪於石上 遇石之嶒時處 則爲小瀑 遇石之狹凹處 則爲小澗 遇石之方廣處 則爲小池 遇石之圓坎 則爲小井 遇平坦處 水如眞珠簾 洄洑處 水如香烟篆 石如槽如鼎如釜如臼如石假山如小島嶼如羊虎如鷄犬 奇奇怪怪 而水環繞旋轉 或澎湃或溇瀟或激射或倒瀉 兩崖樹木蕭瑟 而谷風淒冽 殆天下之奇觀也 當中有宋氏亭舍 : 병천 남쪽의 도장산 역시 속리산의 한 지맥으로 청화산과 마주 보고 있다. 이 두 산 사이와 용추 이북을 통틀어서 용유동 계곡이라 한다. 용유동 계곡 내의 평지는 모두가 반석이다. 큰 내가 서에서 북으로 흐르며, 암반 위에 평평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돌이 산

모양을 보이는 곳에 이르면 작은 폭포가 되고, 돌이 좁고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만나면 작은 시내가 되고, 돌이 방형의 넓은 곳을 만나면 못이 되고, 돌의 모양이 둥글고 구멍이 난 곳을 만나면 작은 우물이 된다. 평탄한 곳을 만나면 물은 진주로 만든 발과 같은 형상으로 흐르고, 휘돌아 가는 곳을 만나면 물은 향의 연기와도 같이 구불구불해진다. 돌은 구유·술·가마솥·절구·석가산·작은 섬·양이나 호랑이·닭과 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신기하다. 물은 빙빙 돌면서 흐르다가 치솟기도 하고, 괴어 있기도 하고, 부딪혀 쓰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지기도 한다. 언덕 양쪽에는 나무들이 소슬하고 골짜기 바람이 싸늘하니, 이야말로 천하의 절경인데 그 가운데에는 송씨의 정자가 있다.) → 암석하상의 특성과 지형에 따른 유수의 속도 그리고 유로 형상 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암석하상이 하식에 의해서 형성된 각종 형상의 포트홀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16) 소·택(龍淵. 계룡산) → 못에 대하여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곡저평야(金溝 母岳山下 有平地洞府 : 금구의 모악산 아래에는 평지상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 계곡의 형상이 평탄한 것은 곡저평야의 특성이다.

18) 암석하상과 포트홀(三巖者 在郡西南峽中 山中大溪 從石洞流下 溪底及兩岸…… 溪水到長凹石 則如石槽貯水 到圓凹石 則如石釜盛水 : 삼암은 군서남쪽 산골에 있다. 산 속의 큰 강물이 돌로 된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고, 강 바닥과 양쪽에 위치한 언덕들이 모두 돌로 되어 있다. …… 하천 침식을 받아 길게 파여 있는 돌에 강물이 도달하면 구유같이 생긴 돌에 물이 저장된 것 같고, 강물이 둥근 모양의 돌에 이르면 가마솥과 같은 형태의 돌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보인다.) → 암석하상의 특성과 포트홀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19) 침식분지(山中闊展平野 二江灌注於中 風氣固密 江山清曠 土地饒沃 多世居士大夫 : 산 속에는 넓게 펼쳐진 평야가 있고, 두 강이 그 가운데를 흐른다. 바람의 기운과 산수가 좋고 또한 땅이 비옥해서 사대부가 많이 살고 있다. 大丘, 卽監司所治也 四山高塞 中藏大野 野中爲琴湖江 : 감사가 다스

리는 곳인 대구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그 가운데 큰 평야가 있다. 평야 가운데로는 금호강이 흐른다.) → 전자의 것은 소규모 침식분지를 의미하나, 후자의 경우는 비교적 큰 분지의 경관을 보여준다.

20) 퇴적암(層巖 : 층을 이루는 바위) → 퇴적층의 형태적 특성을 한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다.

## 2. 산지 관련 지형

1) 급사면 산지(峻節險固 : 가파르고 험하다.)

2) 산맥의 주향과 고개(平安之東 白頭大脈南下 截天爲嶺 嶺東既威鏡道 : 평안도 동쪽에서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절단하여 고개가 되었고, 고개의 동쪽은 함경도이다.) → 산맥의 방향과 고개(영)의 외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 산맥(自首陽·錐山 爲九月者 雖時有高低 實爲大幹脊 : 수양산과 추산으로부터 구월산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산맥이다.) → 산맥의 외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 고립구릉(野中一小山 臨江斗起 : 평야 가운데 작은 산 하나가 강가에 우뚝 솟아 있다.) → 고립구릉의 경관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5) 장년기곡(長谷十餘里 屈曲盤回 而兩岸壁立千仞 大溪中瀉 而山如門戶者屢次 : 긴 계곡이 10여 리에 걸쳐 곡류하며, 계곡 양안은 매우 깊다. 큰 시냇물은 가운데서 솟아나고, 첩첩산중과도 같다.) → 장년기 계곡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산간분지(山中少開平原 有水田 且溪澗之巖石 絕勝 宜耕宜漁 別是一洞天也 : 산 속에는 작은 평야와 논이 있고, 시냇가 바위의 풍광은 수려하다. 경작과 어로에 모두 알맞아서, 이 곳 역시 하나의 동천이다. 山中開野 風氣關鎖 土地甚廣 多世居士大夫 : 산 속에 평야가 있고, 바람이 온화하고, 토지는 매우 넓어서 사대부가 많이 산다. 內多平地大川 闊布其間 殆如野中村落 : 안쪽에는 여러 곳에 평지와 큰 시내가 넓게 발달하고 있어서 마치 평야 가운데 있는 촌락과도 같다.) → 하식작용으로 산중에 형성되는 산간분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산간분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제 활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7) 화강암 도움산지(衝天木星 爲宮城之主 : 하늘

로 돌출해있는 목성 형국이어서 임금 궁궐이 입지할 곳이다.) →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의 산세를 일컫는 말로써 화강암 도움형 산지를 표현하고 있다.

8) 고개(大斷於秋風嶺 : 추풍령에서 크게 끊어짐, 大斷於長水 南原間 : 장수와 남원 사이에서 크게 끊어짐 : 팔랑치를 의미함.) → 고개의 외양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9) 산맥(山脈 : 산줄기)

10) 척량산맥(大幹) → 우리나라 척량산맥인 백두대간을 말함.

11) 고개와 산(謂之嶺者 仍嶺脊稍低平處 開路通嶺東者 其餘皆以名山稱者也 : 고개란 산등성이가 약간 낮고 평탄한 곳을 말하며, 길을 만들어 고개의 동쪽과 연결된다. 그 외 나머지 산등성은 모두 산이라 부른다.) → 고개와 산의 구분을 외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12) 분수계(一國之水 則嶺脊之外 北自咸興 南至東萊 皆東流入海 慶尙一道及蟾津 南流入海 嶺以西 則北自義州 南至羅州 水皆西流入海 : 우리나라의 하천은 산 능선 바깥인 북쪽의 함흥부터 남쪽의 동래까지는 모두 동해로 유입하며, 경상도와 섬진강의 물은 남해로 유입한다. 그러나 산 능선의 서편은 북쪽의 의주부터 남쪽의 나주까지는 하천이 모두 서해로 유입한다.) → 분수계에 따른 유로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13) 산지노출 기반암(金剛山 故山一名 皆骨 無言寸土也 乃至萬仞之嶺 百丈之潭 渾是一石 此天下所無 : 금강산은 산 이름을 일명 개골산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우 높은 산 정상에서 깊은 못까지 오로지 하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 → 화강암 산지의 특성인 돌산에 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14) 토르(衆香城 上安一立石 如佛像 而無眉目 是天成 : 중향성 그 위에는 불상 같은 선돌이 하나 있는데, 눈썹과 눈이 없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 토르의 외관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15) 돌산과 흙산(由是而南 爲雪嶽 寒溪 赤石山石泉 又南爲五臺山 土山 : 여기로부터 남쪽은 설악과 한계인데 산과 샘은 돌로 되어 있고, 그 남쪽은 오대산으로서 흙산이다. 太小白 又土山也 然土色皆秀

穎 : 태백산과 소백산 역시 흙산이지만 흙색은 좋다.) → 기반암에 차이에 따른 산지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16) 고위평탄면(太白有潢池之勝地 是山上開野 頗有峽氓 保聚成村 燒畬爲生 然地氣高寒早霜 民惟以粟麥耕種 : 태백산에는 수려한 경관을 보이는 황지가 있다. 태백산 위에는 평야가 발달하고 있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대의 한랭한 기후 때문에 서리가 일찍 내린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와 보리만 재배한다. 下有赤裳山城 周廻皆石壁如裳 上則坦夷 : 아래에는 적상산성이 있고 주변의 돌로된 급애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위에는 평탄하다. 海印寺西北爲伽倻上峯 石勢戕削四面 人不可升 上似有平坦處 : 해인사 서북쪽은 가야산의 상봉인데,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절벽의 형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람이 오를 수 없다. 그 위에는 평탄한 곳이 있을 것 같다.) → 고위평탄면의 외양과 기후적 특성 그리고 그 곳에서의 토지이용 유형을 표현하고 있다.

17) 다각형 균열<sup>1)</sup>(內有爛柯臺 卽崔孤雲奕棋處 有石 如方野 : 안에는 난가대가 있는데, 최고운이 바둑을 두던 곳으로, 바둑판의 네모진 방안들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다.) → 화강암 풍화특성 중 하나인 다각형 균열(polygonal cracking)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18) 핵석<sup>2)</sup>과 토르(大小二白之間 有浮石寺 卽新羅時古刹也 佛殿後 有一巨巖 橫而豎 上有一巨石 如屋下覆 :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부석사가 있는데, 신라시대 사찰이다. 불전 뒤로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옆으로 서 있고 그것 위에 또 다른 큰 바위가 지붕을 덮어씌운 듯 한 모양을 보인다.) → 화강암의 심층풍화로 생성된 거대 핵석과 토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9) 산정상부의 암석단애(大丘 八公山 赤石峯 橫亘 山東西 溪山頗佳 : 대구의 팔공산 역시 암봉이 옆으로 펼쳐져 있으며, 계곡과 산이 무척 아름답다.) → 화강암으로 구성된 팔공산지 정상부의 암석단애를 표현하고 있다.

20) 나마<sup>3)</sup>(湖南數里許 有寒松亭 有石鼎 石臼之屬 : 경포호 남쪽으로 한송정이 있는데, 술 모양의 돌과 절구 모양의 돌이 있다.) → 일종의 풍화현에 해당되는 나마의 형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21) 경동성 지형(我國之勢 東高西低 : 우리나라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 우리나라 척량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형·지세를 표현하고 있다.

22) 산맥의 구조(而月出一枝別爲南行 有海南縣 縮頭里 爲南海中諸島 渡海千里 爲濟州漢拏山 : 월출산 한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가서 해남현 관두리를 지나 남해의 여러 섬이 되었고, 멀리 바다 건너 제주의 한라산이 되었다.) → 산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월출산과 한라산을 동일 지질 구조로 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 3. 해안 관련 지형

1) 암초(海水清而悍 下多巖石 : 바닷물은 맑으나 파도가 사나우며, 바다 밑에는 바위가 많다.) → 암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2) 만(小海 : 경기만 또는 남양만과 당진만으로 연결된 만, 大澤 : 아산만, 大浦 : 천수만·아산만, 湖, 港) → 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지형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작은 해협(小浦 : 섬과 섬 사이의 작은 해협,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의 해협) → 작은 해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으나, 택리지에 나타난 용어만 보아서는 만과 작은 해협의 구별이 쉽지 않다.

4) 비치리지와 사빈해안 그리고 해안사구(串北有金沙寺 海汀皆沙岸 沙極細如金色 映日閃爍者二十里 每隨風成峯 崔嵬戍削 朝夕遷徙 或峙於東 或峙於西 倏忽左右 游動無定 : 장산곶 북쪽에 금사사가 있는데, 바닷가는 모래언덕으로 되어 있다. 모래의 입경이 매우 작고 금빛을 띠는데, 20리에 달하는 모래밭이 햇빛에 비쳐 반짝인다. 바람이 불 때는 모래가 쌓여 봉우리가 되는데, 높아지기도 했다가 낮아지기도 한다. 아침·저녁으로 이동하여 동쪽에 형성되었다가 서쪽에 형성되고, 좌우로 움직여 일정한 방향을 알 수 없다.) → 비치리지와 사빈해안 그리고 해안사구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안사구의 경우 그것의 성인과 변화 등에 관해서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5) 염생습지(原濕) → 원습은 습지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택리지 본문에서는 염생습지를 의미한다.

6) 이수(용기)해안(東海無潮汐 故水不渾濁 無汙 港島嶼之遮蔽 如臨大澤平塘 闊遠宏壯 : 동해는 조수가 없어서 물이 맑으며, 서해나 남해처럼 섬이 없어서 탁 트여 매우 넓게 보인다.) → 이수(용기)해안인 동해안의 해안선 특성을 표현.

7) 해저지형(水中石脈 自院至亭 橫亘如梁 而梁上 梁下 截如階級 海水日夜自東趨西 如垂瀑而甚急 : 삼주원에서 벽파정까지 바다 밑에 있는 석맥이 다리모양의 형상인데, 다리 위와 다리 아래는 계단모양의 형상을 보인다. 그래서 조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폭포같이 떨어지듯이 빠르다. 大阜島 自花梁行崩洪石脈 從海中過去 而石脈曲連亘 脊上水甚淺 昔有鶴焉 從水中石脊上步去 島人隨而得其路 : 대부도는 화랑진에서 아래로 내려앉은 석맥이 바다 속을 지나가서 형성된 섬이다. 석맥은 굴곡된 상태로 섬까지 이어져 있는데, 수심이 얁다. 과거에 학이 바다 속에 있는 석맥 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섬 주민들이 그 길을 알아냈다.) → 진도 앞바다 울돌목과 서해 대부도의 해저지형 특성을 사실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8) 곶(headland)과 암초 그리고 시스택(長山串者 卽上所記黃海道 長淵地 地入海中 爲角尖處 有石礁 濤瀧之險 船入皆畏之 忠清道 內浦 泰安西 有安興 串 亦如長山之斗入於海 海中雙巖峭起 而舟從兩石間過去 船入甚畏之 : 장산곶은 앞서 언급한 황해도 장연의 땅이다. 땅이 바다 쪽으로 들어가 뿔처럼 뾰족하고, 암초와 물살이 험해서 뱃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 충청도 내포의 태안 서편에도 안흥곶이 있는데, 역시 장산곶처럼 바다 쪽으로 돌출해 있다. 바다 가운데 두 개의 바위가 솟아 있고, 배는 그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뱃사람이 매우 두려워한다.) → 곶과 암초 그리고 시스택의 외관상 특성 표현하고 있다.

9) 석호와 사주(鏡浦 則一小麓 東向而峙 臺在其山 前有湖水 周圍二十里 水深不過人腹 可行小舟 東有江門橋 橋外白沙 重重互遮 湖水通海 而堤外碧海連天 : 작은 산록이 동쪽을 향해 솟아 있는데 경포대는 그 산 위에 있다. 경포대 앞에는 호수가 있으며, 호수의 둘레는 이십리이고 수심은 얁아서 사람의 배꼽 위를 넘지 않지만 작은 배는 다닐 수 있다. 동쪽에는 강문교가 있고 다리 밖에는 흰 모래가 겹겹이 막고 있다. 호수는 바다와 통하고 모

래 언덕 너머에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이어져 있다.) → 경포호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경포호를 둘러싸는 사주에 대해서 상세히 표현하고 있으나, 흰 모래가 겹겹이 막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파식작용(通川 叢石亭 則金剛大麓 直入大海 中 如島嶼 而麓北海中 有大石柱 隨麓身 一行排立 根入海中 上與麓身齋高 上距未滿百步 柱高可百仞 凡石峯 上銳下豐 而此則上下如一 是柱也 非峯也 柱體圓 圓中有斷削痕 自下達上 似木匠刀鍊 柱之上 或古松點綴 柱下海波中 小石柱無數 或豎或倒 與波濤相齧蝕 酷似人作 造物賦形 至奇之巧 此天下之奇觀 而又必天下之所無也 : 통천의 총석정은 금강산 산록이 똑바로 동해로 들어가 된 섬처럼 보인다. 산록 북쪽 바다에는 큰 돌기둥이 있는데, 산록을 따라서 한 줄로 늘어서 있다. 밀둥치는 바다 속에 있고, 위쪽은 산록의 고도와 같다. 산록과는 백 보 거리도 안되지만, 돌기둥 높이는 백 길 가량 된다. 일반적으로 돌 봉우리의 경우 위쪽은 날카롭고 아래쪽은 두텁지만, 총석정은 아래와 위가 같아서 돌 봉우리가 아니라 돌기둥이다. 돌기둥은 둥글고 그 가운데 조각하고 깎은 흔적처럼 보인다.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목수가 칼로 연마한 것 같은데, 돌기둥 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산재한다. 돌기둥 아래 파도가 치는 곳에도 작은 돌기둥이 무수히 있으며, 어떤 것은 서있고 어떤 것은 쓰러져 있다. 파도에 깎이고 잠식되면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므로 조물주가 만든 양 매우 신기하다. 이 곳은 천하의 경승지이다.) → 총석정의 주상절리와 파식에 의해서 마모된 주상절리의 지형 특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사빈해안(海岸皆粲然雪色之沙 : 해안은 모두가 눈처럼 빛나는 모래이다.)

12) 석호와 사주 그리고 해안사구(其內爲鶴浦大湖 周廻三十餘里 水深而空明清澈 四面皆白沙岸 而沙中 海棠透開 爛披雲錦 每微風乍吹 細沙遊走 小則成堆 大則成峯 朝暮遷徙 一日之內 變化莫測 正類西海金沙 甚可怪也 : 그 안에는 학포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둘레가 삼십여 리나 되며 물이 깊고 맑으며 깨끗하다. 사방이 모두 흰모래 언덕이며 모래 속에는 해당화가 피어있는 모습이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 미풍이 불 때 마다 모래가 날려가서

작은 모래언덕이나 큰 모래 봉우리를 만든다. 아침·저녁으로 모래언덕이나 모래 봉우리가 옮겨져서 하루 사이에도 변화가 심하여 예측할 수가 없다. 서해안의 금모래와 같은 종류여서 매우 신기하다.) → 원산의 명사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석호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사주와 해안사구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3) 석호의 분포(고성의 삼일포, 강릉의 경포대, 흡곡의 시중대, 간성의 화담, 영랑호, 양양의 청초호)

14) 해안단구(而海岸 如江汀溪畔 小石奇巖 錯立岸上 : 해안에는 강가나 시냇가와 같이 작은 돌과 기묘한 바위가 바닷가 언덕 위에 뒤섞여 있다.) → 해안단구의 퇴적물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15) 간척지(多障潮 爲水田 : 조수를 막아 논을 만든 곳이 많다.) → 간척사업과 토지이용을 설명하고 있다.

#### 4. 화산 관련 지형

1) 용암대지와 현무암 그리고 화산지대의 유년기곡(邑雖隸江原 卽野邑 西與京畿 長湍接壤 土雖瘠 大野靄山 平闊明朗 在二江內 亦峽中一都會也 然野中水深 而黑石如蟲蝕 是可訝異 : 철원은 비록 강원도에 속하지만 평야에 형성된 취락이어서, 서쪽은 경기도 장단과 접한다. 땅은 비록 척박하지만 평야가 넓고 산이 낮아, 평활하고 명랑하다. 두 강 안쪽에 있으면서 산골 가운데 한 취락을 만들었다. 그러나 평야 가운데 물이 깊고 검은 돌이 벌레 먹은 듯하니 매우 이상스럽다.) → 한탄강 일대의 용암대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화산지대의 유년기곡 특성과 현무암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2) 칼데라호(白頭山在女眞 朝鮮之界 爲一國華蓋 上有大澤 周廻八十里 西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江 北流爲混同江 : 백두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정상에는 큰 못이 있고 못의 둘레는 약 80리이다. 못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이, 북쪽으로 흘러서 혼동강이 된다.) → 백두산 천지연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천지연은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중국 송화

강의 발원지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3) 용암동굴(谷山 高達山, 極深且阻 有巖窟洞穴之奇 : 곡산의 고달산은 매우 깊고 차단된 상태이며, 바위구멍과 동굴이 기이하다.) → 황해도 곡산 지방의 용암동굴과 화산암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4) 주상절리(光州 無等山 上有石條數十 排列於空中 如卓筯 : 광주 무등산에는 가지처럼 생긴 돌이 수십 개가 공중에 배열되어 있는데, 마치 홀처럼 생겼다. 通川 叢石亭 則金剛大麓 直入大海中 如島嶼 而麓北海中 有大石柱 隨麓身 一行排立 根入海中 上與麓身齋高 上距未滿百步 柱高可百仞 凡石峯 上銳下豐 而此則上下如一 是柱也 非峯也 柱體圓圓中有斷削痕 自下達上 似木匠刀鍊 柱之上 或古松點綴……此天下之奇觀 而又必天下之所無也 : 통천의 총석정은 금강산 산록이 똑바로 동해로 들어가 된 섬처럼 보인다. 산록 북쪽 바다에는 큰 돌기둥이 있는데, 산록을 따라서 한 줄로 늘어서 있다. 밑둥치는 바다 속에 있고, 위쪽은 산록의 고도와 같다. 산록과는 백 보 거리도 안되지만, 돌기둥 높이는 백 길 가량 된다. 일반적으로 돌 봉우리의 경우 위쪽은 날카롭고 아래쪽은 두텁지만, 총석정은 아래와 위가 같아서 돌 봉우리가 아니라 돌기둥이다. 돌기둥은 둥글고 그 가운데 조각하고 깎은 흔적처럼 보인다.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목수가 칼로 연마한 것 같은데, 돌기둥 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산재한다. 돌기둥 아래 파도가 치는 곳에도 작은 돌기둥이 무수히 있으며, 어떤 것은 서있고 어떤 것은 쓰러져 있다. 파도에 깎이고 잠식되면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므로 조물주가 만든 양 매우 신기하다. 이 곳은 천하의 경승지이다.) → 광주 무등산의 서석대·입석대와 금강산 앞바다 총석정의 주상절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총석정의 주상절리에 대한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다.

5) 화구호(濟州 漢孛山 是爲瀛洲山 上有大池 : 제주 한라산은 영주산으로도 부르는데, 산 위에는 큰 못이 있다.) → 한라산 정상부에 위치한 화구호 백록담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백두산의 천지연에 비해서는 설명이 매우 단조롭다.

### 5. 석회암 관련 지형

1) 석회동굴(울진 선유산의 석회동굴) → 울진 성류굴에 대해서 언급.

2) 석회동굴과 카르스트지형 경관(而大溪日夜瀉下於石洞石崖之下 千回萬轉 不可殫述 此金剛山萬瀑洞 雄壯少遜 而或曰 技巧精妙過之 蓋金剛以後 無此水石 當爲三南第一矣 : 하천이 석회동굴과 급애면 아래로 쏟아져 흘러내리면서 끊임없이 돌고 흐르는 모양을 모두 표현하기가 어렵다. 금강산의 만폭동에 비한다면 웅장한 맛은 적지만 신비하고 묘한 경치는 더 좋다고도 한다.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수석이 없으니 삼남에서는 제일이다.) → 석회동굴의 존재와 카르스트지형 경관의 수려함을 표현하고 있다.

3) 凹형 카르스트지형과 카르스트 수계(三陟 竹西樓 則據五十川爲勝 而絕壁下 有暗竇 水至其上 漏如落澌……人謂 邑其穴 坐空亡 故人材不出伝 : 삼척의 죽서루는 오십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명승지다. 절벽 아래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그 위에서는 물이 아래로 새어나오면서 떨어지며…… 사람들이 이르기를 마을이 그러한 구멍 즉 공망혈에 자리하고 있어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발달하는 돌리네, 우발라 등의 凹형 카르스트지형과 카르스트 수계 특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 III. 우리 식 지형용어 정립의 시도

지금까지 택리지에서 나타난 모든 지형들에 대해서 지형의 특성과 성인을 사실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현대 지형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청담이 사용한 지형 용어 중에서 어떤 것은 현재 사용되는 기존의 일본식 지형 용어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대적 감각을 지닌 용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용어 자체에서 지형의 형상적 특성을 단 번에 인식할 수 있어서 매우 뛰어난 용어로 평가되어 차체에 정식 지형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sup>4)</sup> 물론 현재 우리 지형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식 용어를 택리지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 식 지형용어 개발에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가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취지에서



표 1. 택리지와 현행 지형학계의 지형 용어 비교

대지형 분류	택리지의 지형용어	현대 지형용어	비 고
하천 관련 지형	沙岸	포인트바	河沙岸
	水口	河口·水路	
	溪石壁·石崖	河蝕崖	河石壁·河石崖
	潭·大石臼·龍沼	폭호	龍沼
	八曲九遙·九遙八曲·山中屈曲河川	감입곡류천	八曲九遙·九遙八曲·山中屈曲河川
	石鼎·石釜(圓石凹)·石臼·石槽(長石凹)	포트홀	河石鼎·河石釜(圓石凹)·河石臼·河石槽(長石凹)
	平地洞府	곡저평야	평지곡
	石洞	암석하상	
	山中平原	산간분지	山中平原
	層巖	퇴적암	
산지 관련 지형	大脈·大幹·大幹脊·山脊	산맥	
	皆骨山	기반암 노출산지	
	立石	토르	선돌·탑바위·선바위
	石峯	산정상의 노출 기반암	암봉
	석정·석구	나마	석정(가마솥바위)·석구(절구바위)·석조(구유통 바위)
해안 관련 지형	小海(경기·남양·당진만으로 연결된 큰 만), 大澤·大浦(아산만·천수만)	만	小海(경기·남양·당진만으로 연결된 큰 만), 大澤·大浦(아산만·천수만)
	小浦	작은 해협	小浦=작은 해협
	原濕	염생습지	
	石礁	암초	
	白沙堤	사주	海沙堤
	白沙岸	비치리지	海沙岸
	白沙峯	해안사구	海沙峯
	석회암 관련 지형	石洞	석회동·중유동

출발하였다. (표 1)은 택리지에서 언급된 지형 용어와 현재 우리나라 지형학계에서 사용되는 지형 용어를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비고 난에 기재된 지형 용어들 중 일부는 연구자가 택리지의 지형 용어를 필요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새로운 지형 용어로 구성하여 보았다. 예를 들면 택리지에서 사안(沙岸)은 포인트바를, 백사안(白沙岸)은 비치리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구별을 위해서 포인트바의 경우 하천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하사안(河沙岸)으로, 사빈해안에서 형성된 비치리지는 해사안(海沙岸)으로 표현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석애와 해석애는 각각 하석벽(하석애)과 해석벽(해석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담은 택리지에서 동일한 지형이라도 외양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지형학계에서 그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포트홀의 경우 택리지에서는 석정(石鼎)·석부(石釜 : 圓石凹)·석구(石臼)·석조(石槽: 長石凹)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동일한 지형이라도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서 지형의 외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석정이나 석부는 포트홀의 형상이 가마솥처럼 둥근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석조는 구유처럼 길쭉한 형상을 의미한다. 특히 석구는 둥근 형태이면서도 내부가 깊은 절구통 형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청담은 형상이 서로 비슷한 포트홀과 나마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담이 포트홀과 나마의 성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하식으로 형성되는 포

트홀의 경우는 기존의 용어 앞에 하(河)자를 첨가하여, 하석정·하석부·하석구·하석조 등으로 명명한다면, 나머지의 석정·석부·석구·석조 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안지형으로서 만은 그것의 규모에 따라서 대택(大澤)·대포(大浦)·소포(小浦)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 IV. 청담의 지형관 분석

택리지는 청담이 실제로 30 여 년 간에 걸친 답사를 통한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서적이어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요소가 있지만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매우 훌륭한 지리서로 평가된다.

그는 「북거총론」에서 ‘근처에 구경할만한 산수가 없으면, 성정을 도야시킬 수 없고 …… 산수는 사람의 정신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며, 사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촌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기름지고 땅이 넓은 들에 지세가 좋은 곳을 골라 살면서 10리 밖이나 반나절 거리에 산수가 좋은 곳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가끔 들러서 심신을 정진하고 오면 그것이 최고이다.(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夫山水也者 可而怡神暢情者也 居而無此 則令人野矣 然山水好處 生利多薄 不如擇沃土廣野地理佳處築居 買名山佳水於十里之外 惑半一程內 每一意到 時時往復 以消憂惑宿留而返 此乃可繼之道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청담의 지형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현대사회의 별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그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지세에 관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른바 동고서저형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가 우리나라 지형·지세를 한 눈에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지형별로는 하천 관련 지형·산지 관련 지형·해안 관련 지형 등 일반지형에 관한 언급이 많으며, 특수지형에 해당되는 화산 관련 지형·석회암 관련 지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형이 산지와 하천이 많다는 특성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어

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그의 답사가 사실적이며,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담은 화산 관련 지형과 석회암 관련 지형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지형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형분류체계와도 유사하여 지형학적 감각이 매우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담 역시 우리나라 지형·지세를 설명하는 중에 약간의 오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강화부 편에서 ‘강화 일대의 동북쪽은 강으로 서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큰 섬이며, 수도 한양과 관련된 수구역할을 하는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府一境 東北環江 西南環海 爲大島 爲漢陽水口之羅星).’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화도 동북부는 예성강과 임진강 그리고 한강의 하구로 형성된 바다이므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 또, 한라산의 형성에서는 ‘월출산 한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가서 해남현 관두리를 지나 남해의 여러 섬이 되었고, 멀리 바다 건너 제주의 한라산이 되었다(而月出一枝別爲南行 有海南縣 縮頭里 爲南海中諸島 渡海千里 爲濟州漢擎山).’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한라산이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이것 역시 잘 못 된 설명이다. 이 밖에도 풍수적인 설명을 부가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의 설명이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청담의 해박한 지형관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형학 관련 학문적 체계가 전무한 상태였던 당시의 수준을 고려할 때, 앞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택리지는 매우 뛰어난 지형학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또 ‘물자의 수송에 있어서 말보다는 수레가 수레보다는 배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들보다 산지가 많아서 수레보다는 말이 유리하고, 또 삼면이 바다여서 배편이 육상교통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관련한 수송 수단의 방안을 적절히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가거지의 선정 요인으로서 청담은 지리(地理)·생리(生利)·인심(人心)·산수(山水)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지리는 다시 수구·야세·산형·토색·수리·조산조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수구 : 물이 유입되는 것만 보이고 유출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유출이 안 보이는 곳은 언덕이나, 구릉, 산지 등으로 취락이 둘러싸인 곳이다. 또는 주거지가 경작지보다 약간 높아서 유출이 안 보이는 곳이다. 결국 배산임수지로서 주변의 경작지 보다 약간 높은 곳이 주거지에 유리하다. 이것은 용수 구득과 침수로 인한 수해의 사전 대비가 용이하다. 또 여러 겹의 산세로 둘러싸인 곳이 좋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볼 수 없으므로 방어와 피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설령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 겹의 산은 외부로부터의 진입에 있어서 장애가 되므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영위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폐쇄적인 생활방식의 영향도 받았음을 의미한다.

2) 야세 : 수구가 닫힌 상태에서 들은 넓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들이 넓다는 것은 일조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인간의 건강과 농작물의 생육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취락을 둘러싸는 산의 높이에 비해서 햇빛이 충분히 쬐일 수 있는 넓은 들이 있어야 한다.

3) 산형 :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야담한 것이 으뜸이다. 반면에 산줄기가 생기가 없거나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 길한 곳이 적은 경우는 좋지 않다. 즉 이것은 흰 빛을 띄어 청명해 보이는 화강암 지질 기반암 산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산사태를 비롯한 지형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가능성이 있는 지형은 피해야한다는 의미이다.

4) 토색 : 토질이 모래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이나 샘물이 맑고 차다. 반면에 붉은 찰흙이나 검은 자갈, 누런 진흙이면 이것은 죽은 흙이어서, 그 땅에서 샘 솟는 우물물이나 샘물에는 반드시 장기가 있다. 즉, 전자는 화강암이 풍화된 모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곳은 수질정화에 유리하다. 후자는 토색이 밝지 못하고 진한 색이다. 이것은 토양 속에 철분, 망간 등의 불순물이나 유기물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음료수로 는 부적합한 경우이다.

5) 수리 : 물은 재물을 의미하는데,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들이 많다. 비록 산 속이더라도 시냇물이 모여드는 곳이라야

좋다. 즉 이것은 과거 농경중심사회의 경우 풍작은 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일정량의 수량확보는 필연적이다.

6) 조산조수 : 조산에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거나 비뚤어진 외딴 봉우리가 있거나 무너지거나 떨어져 나간 모양 등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보이면 좋지 않은 곳이다. 산은 멀리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해야 한다. 사람이 한 번만 보아도 기쁨을 느끼며 울통불통하게 밭살스러운 모양이 없어야 좋다. 조수는 물 건너 물을 의미하는데, 작은 물은 거슬러 흘러드는 것이 좋지만, 큰 물은 그렇지 않다. 유입되는 물은 산맥의 방향과 음양 이치에 맞아야 한다. 또 곡류하면서 완만하게 흘러드는 것이 좋고 직류형태로 곧 바로 흘러드는 것은 좋지 않다. 우선 조산의 경우 비정상적인 모양은 지질구조상 지각 변동대이거나 지형재해를 발생시킨 곳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산이 맑고 깨끗한 경우는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의 경우인데, 화강암은 흰 빛을 띄므로 맑고 밝은 빛을 보인다. 또한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수의 경우 작은 물이 거주지로 흘러드는 형상이면 용수확보에도 유리할뿐더러 홍수발생 시 미리 대피할 여지가 있다. 설령 작은 물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미미하다. 반면에, 큰 물의 경우 흘러드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홍수 시에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물이던 작은 물이던 간에 흘러드는 속도가 완만한 것이 좋다는 의미는 홍수에 의한 피해를 염려한 것이다.

결국 그는 가거지 결정요소의 중요성을 첫째 지리, 둘째 생리, 셋째 인심, 넷째 산수로 보았으며, 이 중에서 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즉 지리의 경우, 농사 짓기에 적당한 평야·기름진 토양·풍부한 양질의 용수·경작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하천의 유속이 완만한 곳·북서쪽은 산으로 둘러 쌓이고 남동쪽은 평야지대에 연결되면서 흰히 트인 곳·일조시간이 많은 곳·난리를 피할 수 있는 곳(둘러 쌓인 곳) 등이 모두 충족되는 곳을 좋은 가거지로 보았다. 이 밖에 생리·인심·산수 등의 요소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재 고개)·서울과 가까운 곳·생리에 유리한 곳·풍속이 좋은

곳·풍치가 좋은 곳 등을 가거지 선정에 주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그는 상기의 가거지 요소인 지리·생리·인심·산수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좋은 가거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청담은 또한 '사대부가 사는 곳 치고 인심이 고약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사대부는 한 지방의 패권 잡기만 좋아하고, 다른 당파와는 한 고장에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끼리도 서로 헐뜯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대부의 거주지는 주로 폐쇄적인 공간을 찾게 마련인데, 삼남의 4대 길지인 안동의 하회마을과 천전마을, 봉화의 유곡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등은 거주지 일대가 모두 산지로 둘러 싸여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결국 이러한 마을들은 좋은 가거지로 볼 수 없으며, 굳이 가거지로서의 기능을 찾는다면 당시 일종의 소규모 공동체의 주도세력이었던 지방 사대부 계층에게 적합한 가거지일 뿐이다. 따라서 도시화·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세계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 현대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다만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수려한 지형경관이 사람의 성정을 도야시킨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탈자연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수려한 자연경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형학의 현실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 V. 결론

종래 인문지리서로 인식되어온 이중환의 택리지를 지형학적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택리지는 인문지리서로는 물론 자연지리서로도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는 특정한 분야의 지리서가 아닌 인문과 자연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일반 지리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리지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현대 지형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오늘날 지형학계에서는 학자들간에 기존의 지형 용어가 일본식 표현이 지배적이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학문의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과 우리 정서에 맞는 지형 용어 정립이라는 의미에서 지형 용어의 우리 식 표현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제안하였다. 끝으로 청담 이중환의 지형관을 택리지 전반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이들을 요약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택리지는 주로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온 결과 일반적으로 인문지리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택리지를 자연지리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택리지는 인문지리는 물론 자연지리 내용에 있어서도 결코 손색없는 지리서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어느 특정한 분야의 지리서가 아닌 일반 지리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2) 청담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지세에 관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른바 동고서저형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가 우리나라 지형·지세를 한 눈에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지형별로는 하천 관련 지형·산지 관련 지형·해안 관련 지형 등 일반지형에 관한 언급이 많으며, 특수지형에 해당되는 화산 관련 지형·석회암 관련 지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형이 산지와 하천이 많다는 특성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그의 답사가 사실적이며,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화산 관련 지형과 석회암 관련 지형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지형학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형분류체계와 유사하여 청담의 지형학적 감각이 매우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담 역시 우리나라 지형·지세를 설명하는 중에 약간의 오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풍수적인 설명을 부가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의 설명이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청담의 해박한 지형관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형학 관련 학문적 체계가 전무한 상태였던 당시의 수준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담의 지형학적 감각은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오늘날 우리나라 지형학계에서 사용되는 지형 용어는 원래 유럽이나 북미에서 제정된 것을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식 용어로 다시 고쳐 부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택리지에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대한 지형 특성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형은 성인까지 언급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지형용어는 우리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청담이 사용한 지형 용어 중에서 어떤 것은 현재 사용되는 기존의 일본식 지형 용어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대적 감각을 지닌 용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차체에 정식 지형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현재 우리 지형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식 용어를 택리지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 식 지형용어 개발에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4)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가거지 선정 요인으로서는 청담은 지리·생리·인심·산수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지리는 다시 수구·야세·산형·토색·수리·조산조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담이 가거지 요소로서 지형·지질·기후 등 자연지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물자의 수송에 있어서 말보다는 수레가 수레보다는 배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들보다 산지가 많아서 수레보다는 말이 유리하고, 또 삼면이 바다여서 배편이 육상교통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관련한 수송 수단의 방안을 적절히 제시해주고 있다. 또 청담은 「북거총론」에서 '근처에 구경할만한 산수가 없으면, 성정을 도야시킬 수 없고……산수는 사람의 정신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며, 사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촌스럽게 만든다.'고 하여 산수 즉 지형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註

- 1) 본 지형은 풍화지형이지만, 주로 산지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지 관련 지형으로 분류하였다.
- 2) 본 지형은 풍화지형이지만, 주로 산지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지 관련 지형으로 분류하였다.
- 3) 본 지형은 풍화지형이지만, 주로 산지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지 관련 지형으로 분류하였다.
- 4) 현재 지형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형 용어들 중 몇 가지를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할 것으로 판단되는 용어들로 바꾸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경치(풍경), 애추→너덜경(너덜지대), 암괴류→

돌강(바위강), 암괴원→돌밭(돌바다·돌평원), 타포니→벌집바위, 포트홀→돌개구멍, 나마→가마솥바위, 핵석→돌알, 하중도→깁부내들, 포인트바→모래부리·자갈부리·(진)흙부리, 범람원→갯들, 습지→벌, 바(bar)→모래톱·자갈톱, 평야→들, 계곡→골(골짜기), 폴리곤얼 크랙킹(polygonal cracking)→다각형균열, 하식에→뺨대, 자연제방→강모래등, 연안사주→바다모래등, 곡저평야→가는들(대넷들), 건천→가문내(가무내), 분지를 둘러싸는 산지→두루메(두루봉), 하천의 합류지점→어우내, 급애→벼랑, 분지→달구벌.

- 5) 일반지형과 특수지형의 구분은 환경부 제2차 전국자연환경 조사 지침서(2001년)에 의함.

## 文獻

- 권상노, 1961,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 김윤곤, 1973, 이중환의 택리지, 일조각.
- 김정심, 1982, 이중환의 택리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도양, 1963, 팔역지 「가거지」해설, 지리학, 1, 91-96.
- 노도양 역, 1988, 택리지 I/II, 명지대학교출판사.
- 문명서, 1984, 택리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용, 1990, 이중환의 정치적 위치와 택리지 서술, 진단학보, 69, 127-143.
- 박영한, 1977, 청담 이중환의 지리사상에 관한 연구, 낙산지리, 4, 25-39.
- 서수인, 1963, 택리지 연구서설, 지리학, 1, 83-90.
- 오 성, 1990, 『택리지』의 팔도총론과 「생리」조에 대한 고찰-경제관계기사의 서술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69, 145-163.
- 유원동, 1983, 이중환, 정음문화사.
- 윤여정, 1998, 한자에 빼앗긴 토박이 땅이름, 향지사.
- 위원학, 1984, 현대지역이론에서 고찰한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 소고, 지역연구, 5/6집, 단국대 지역연구소.
- \_\_\_\_\_, 1992, 한국의 전통적 지역이론에 관한 연구-택리지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3, 택리지연구, 신양사.
- 이영택 역, 1975, 택리지, 삼중당문고.
- 이익성 역, 1999, 택리지, 율유문화사.
- \_\_\_\_\_, 1990, 이중환 택리지, 한길사.

- 이 찬, 1983, 택리지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애산학보, 3, 1-29.
- 전미경, 1995, 「택리지」의 가거지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미경·정기호, 1995, 『택리지』의 경관론 연구방향의 모색, 조경연구, 22(1), 175-188.
- 정기호, 1990, 택리지의 문의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3), 49-57.
- \_\_\_\_\_, 1993, 택리지의 경관론적 고찰: 복거총론 「산수」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1(3), 1-10.
- 최영준, 1990, 택리지: 한국적 인문지리서, 진단학보, 69, 165-189.
- \_\_\_\_\_, 1994, 풍수와 『택리지』, 한국사 시민강좌(14), 98-122.
- 최희만, 2000, 전통취락의 지형적 특성과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경진 역, 1998, 택리지, 한양출판.
- 허 응, 1983, 국어사의 측면에서 본 국문판 '택리지'의 언어분석, 애산학보, 3, 31-54.
- 홍이섭, 1974, "택리지"에 나타난 이중환의 사상, 서울평론, 19, 22-27.

(2002년 4월 20일 접수)